

재외동포의



08
2015



특집 _ 55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모국서 '맞춤형 교육' 연수 “유적지 집중탐방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생겼어요”
화제 _ 49개국 동포 청소년 400여 명, 고국에서 역사 문화 체험 | 중국 조선족 교사 95명, 모국서 역량 강화 연수



균형미 뛰어난 성덕대왕신종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



국보 29호인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해 성덕대왕신종이라고 불렀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해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따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성덕대왕신종은 그동안 구리 12만 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무게가 약 20일 것으로 추정만 해왔으나 경주박물관이 직접 측정한 결과 18.9t으로 밝혀졌다. 신종은 높이 3.36m, 구경 2.2m, 두께 7.5~21.5cm 규모다.

이렇게 커다란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균형미로 안정감이 있으며, 또한 종을 장식한 화려한 비천상과 종을 매는 부분의 용 조각, 세련되고 정교한 여러 문양은 우리나라 종이 가진 아름다움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종을 기본형으로 해서 종을 만들었다.

이 종의 동쪽과 서쪽에는 종 고리인 용머리의 방향과 같은 축으로 둥그런 연꽃무늬의 당좌(撞座)가 종신에 새겨져 있다. 종을 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쳐야지 그렇지 않고 조그만 어긋나거나 비켜가도 제대로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몸체 2곳에는 종에 대한 내력을 담은 1천여 자에 달하는 명문이 양각됐다. 이 명문은 문장뿐 아니라 새긴 수법도 뛰어나다. **장**



- 1. 성덕대왕신종
- 2.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 3. 성덕대왕신종의 유두, 종뉴, 유통 부분



표지 이야기

전 세계 55개국 한글학교 교사 186명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국에서의 집중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초청으로 방한해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도 용인, 충남 부여·공주 등지를 돌며 교수법을 익히고 문화체험을 했다.

- 02 한국의 얼** 균형미 뛰어난 성덕대왕신종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
- 04 특집** 55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모국서 '맞춤형 교육' 연수
"유적지 집중탐방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생겼어요"
- 06 동포 소식**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 전국대회 개최 외
- 09 동포 캘린더** 뉴질랜드 한인방송, 자체 제작 시트콤 방영 외
- 10 기획** 유학생 단체로 시작해 통합된 영국 한인사회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녀교육에 열심
- 12 화제** 49개국 동포 청소년 400여 명, 고국에서 역사 문화 체험
지역생활 탐방 후 DMZ서 평화 기원 자전거 행진

중국 조선족 교사 95명, 모국서 역량 강화 연수
동북 3성 조선족 학교 "학생 줄수록 사명감 커져"
- 14 글로벌 코리안** 한미 협력 앞장서는 김영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프리미엄 비즈니스 센터로 승부하는 CEO SUITE 김은미 대표
제주서 '망향의 노래' 지휘한 재일동포 고창수 씨
- 16 지구촌 통신원** 쿠바 아바나 한국어 강좌, 개설 3년 만에 첫 수료식
수료생 11명 "사랑해요 한국"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 지켜야 가산세 피한다
- 18 한민족 공감**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개최
'풀뿌리 통일 준비 운동' 실천 다짐
- 19 동포의 창** 봉사로 눈뜬 '제2의 조국' 과테말라
고부명 _ 과테말라 _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 20 동포문학** 내 인생의 출발지
박수완 _ 중국 _ 2014 동포문학상 고등부 최우수상
- 22 OKF 뉴스** 전 세계 한인회 실무진 43명 초청 연수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별미 막국수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는다
- 26 재단 공지**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5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모국서 ‘맞춤형 교육’ 연수 “유적지 집중탐방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생겼어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초청으로 방한한 55개국 한글학교 교사 186명은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도 용인, 충남 부여·공주 등지를 돌며 교수법을 익히고 문화체험을 했다.

전 세계 55개국 한글학교 교사 186명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국에서의 집중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초청으로 방한해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도 용인, 충남 부여·공주 등지를 돌며 교수법을 익히고 문화체험을 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온 박용준 테러호트 한글학교 교장은 “점차 현지화하는 재외동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한국 문화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연수에 앞서 각오를 밝혔다.

벨라루스 고려인협회 한글학교 교사인 김지연 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2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대부분이 현지인”이라며 “한민족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쉽게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계별 집중강의와 체험으로 전문성 향상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조규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가 낯설고 물 선 이국 땅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것이 한글학교”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117개국 2천여 개 한글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 1만 5천여 명의 헌신과 노고로 재외동포 자녀가 글로벌 한민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고 치하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교사 전문성 강화, 뿌리 교육 콘텐츠 확대, 글로벌 교사 네트워크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신영숙 미주한국학교연합회 회장은 답사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연수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많은 교사에게 연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회식에 이어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한국의 문화, 한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천 관장은 “박물관은 쉽고 재밌는 치유의 공간이므로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미는 게 중요하다”며 “교사 여러분도 역사와 문화를 암기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동짓날 팔죽을 먹듯 생활 속 문화로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박물관을 관람한 후 부여, 공주로 이동해 오는 23일 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대, 공주국립박물관 등을 찾아 역사·문화를 체험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선열의 넋을 기리고자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24일부터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한국어 발음·문법·교수법 등의 특강과 학습자 수준·흥미·숙달을 고려한 유초·중등·고등학교별 집중강의 등에 참여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지역별·수준별 세분화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번 연수의 특징이었다”며 “우수 한글학교 사례 발표를 통해 운영 노하우도 나누고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위한 토론 및 네트워킹도 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어 발음·문법·교수법 특강, 학습자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유년·초등·중등·고등 분반 학년별 집중강의가 이어졌다.

26일에는 문화체험의 하나로 서울로 이동해 광화문 일대를 둘러 보고 한글박물관 방문해 우리말의 유래를 배우기도 했다.

“교수법 노하우 배운 값진 시간”

“부족했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고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겨 자신감이 늘었습니다.”



충남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한 한글학교 교사들이 전통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친직처럼 느껴집니다. 정체성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감도 느낍니다.”

7박8일의 교사 연수를 마친 한글학교 교사들은 폐회식에서 “연수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갔다”며 “많은 걸 배워 부족한 실력이 는 것 같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교사 대표로 소감을 밝힌 김도원 영국 케임브리지 한글학교 교사는 “한글학교 운영 사례 발표와 분임 토의를 하면서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겨 학교 운영과 수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장석 프랑스 몽펠리에 한글학교 교장은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이 교사인 경우도 많아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동포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교사를 파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교장은 생활비나 급여는 동포재단이 지원하고 현지 숙식은 한인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 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김한권 중국 쿤밍한글학교 교사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유적지 집중 탐방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생겼다”고 반겼다.

인도네시아 족자 한글학교의 김은숙 교사는 “우리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졌다거나 침략을 많이 받은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 생각이 이번 역사문화체험으로 바뀌었다”며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겨 역사 수업이 가장 기다려지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교사들은 “연수가 큰 도움이 되지만 5년에 한 번은 너무 길어 아쉽다”며 “계속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주기를 줄이거나 교사를 파견해 현지에서 집중연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



연수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사들은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익히고 노하우를 공유했다.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 전국대회 개최

풀뿌리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전국대회가 7월 21일부터 2박3일간 미국 워싱턴DC 홀리데이 인 캐피털 호텔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연합회와 시민참여센터(KACE)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이번 행사에서 미주 주요 지역의 한인 활동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지역별 유권자 등록운동과 선거 참여 등 풀뿌리 활동 방법과 시민 참여 활동 교육 ▲커뮤니티 조직과 풀뿌리 로비 등 리더십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80% 등록과 80% 투표율을 유도하는 지역 맞춤형 '8080 캠페인'을 소개하



미 워싱턴서 제2차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 전국대회가 열렸다.

고, 참가자들이 각자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 관계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등이다.

행사 이틀째인 22일 저녁에는 하얏트 리젠시 워싱턴 호텔에서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주류 정치를 향한 한인 풀뿌리 활동가들의 정치력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동포후원재단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에 하경서 회장

미주동포후원재단(KALF·이사장 김재권)이 시상하는 '제10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엘살바도르의 한인 거상(巨商) 하경서(53) 카이사(CAISA)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KALF는 추천 후보 13명의 사회봉사 및 공헌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하 회장을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하 회장은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왕성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을 뿐 아니라 엘살바도르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포 사회 권익 신장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0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해 미국 LA에서 성장했다.

LA 칼스테이트대(CSU)를 졸업하고 30대 초반까지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미국 내 봉



미주동포재단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엘살바도르의 하경서(53) 카이사(CAISA)그룹 회장

제업계가 위기를 맞아 엘살바도르로 사업 기반을 옮겼다.

현지에서 봉제업, 포장박스 제조, 요트 마린사 사업 등을 하며 연간 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직원 5천500여 명을 고용하고, 미성년 미혼모에게 직업교육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가로보(GARROB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의 16개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인회장을 맡아온 그는 한글학교 건물을 세우고 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미·카리브해 한인회 총연합회 초대 회장도 맡았다. 하 회장은 상패와 상금 1만 달러를 받는다.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 PGA 투어 첫 승

뉴질랜드 동포인 대니 리가 7월 6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올드화이트 TPC(파 70·7천287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연장 2차전 끝에 데이비드 헌(캐나다)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프로 전향 7년 차에 거둔 PGA 투어 첫 승이다.

대니 리는 골프 티칭 프로 출신인 어머니 서수진 씨의 지도로 골프를 시작해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08년 US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며 세계 골프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당시 18세 1개월이던 대니 리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갖고 있던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18



대니 리가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7개월 29일)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이 우승으로 대니 리는 이듬해 마스터스, US 오픈, 브리티시오픈 등 메이저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이후 그는 생애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대회를 치른 이후인 2009년 4월 프로로 전향했다.

이에 앞서 그는 2009년 2월 호주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프로 대회 첫 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높였다. 이 역시 유럽 투어 최연소 우승이었다.

그는 17세 때인 2006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매경오픈에서 3위에 올라 국내 팬들에게 인상을 남겼고, 체육특기자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나갔다.

‘독일의 한국 사위’ 드레스덴 시장에 당선됐다

한국인 여성 성악가와 결혼한 독일 드레스덴 부시장이 가족사진을 선거 포스터로 내걸고 ‘다문화 공존과 포용’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54만 인구의 드레스덴은 수도 베를린을 둘러싼 브란덴부르크 주 바로 아래 있는 작센 주의 주도로 독일 통일 후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옛 동독의 모델 도시로 꼽힌다.

시장 자유와 친(親) 기업 지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디르크 힐버트(44) 부시장은 7월 5일 치러진 시장 결선 투표에서 54.2%를 얻어 44.0%에 그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의 에바-마리아 슈탕게 후보를 누르고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힐버트 부시장은 1차 투표에서 32.0%를 득표해 36.0% 지지의 슈



인구 54만의 드레스덴 시장을 맡게 된 힐버트 당선자가 부인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탕게 후보에 뒤졌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실시된 2차 결선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무엇보다 포용 이미지를 내세운 선거 캠페인이 주효했다. 그는 FDP 당원이지만 무당파 후보로 나서서 직전 시장이던 헬마 로츠가 속한 기독교민주당(CDU) 등 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슈탕게 후보가 좌파당, 녹색당 등과 함께 좌파 지지를 결집한 데 맞선 이 전략은 위력을 발휘했다.

이에 더해 34세의 메조소프라노 성악가 출신 한국인 부인, 그리고 5살 난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선거 포스터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인이 남아공에 세운 초등학교 인기 폭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한 시골 마을에서 한국인이 남아공 최초로 사립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남아공 최대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약 120km 떨어진 노블 팜스(Noble Palms) 초등학교 설립자 조성수(58) 선교사.

조 선교사는 1987년 남부 아프리카 보츠와나 1호 한인 선교사로 파송돼 목공, 편물, 양재 등 여러 기술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과 힘을 모아 기술학교를 운영하며 현지 청소년들의 자립갱생을 도왔다. 그가 남아공으로 와서 노블 팜스 초등학교를 설립한 것은 2012년 1월. 아무런 학교 운영 경험이 없는 조 선교사 가족이 설립한 이 학교는 개교 4년째에 불과하지만 벌써 지역은 물론 멀리 외국까지 소문이 나 입학을 원하는 대



노블 팜스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교내 나무그늘 아래 모였다. 설립자인 조성수 선교사는 맨 뒤에 서 있다.

기 학생들이 줄을 설 정도다.

이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교사들이 '배아파서 낳은 자식처럼 하나하나 대하자'는 설립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1년에 두 번 있는 학부모 면담 때 30대 여교사와 면담한 한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사랑으로 대하는 충고에 감동, 젊은 여교사 앞에서 장시간 대성통곡한 적도 있었다.

이 학교는 또 교사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급당 인원을 16명으로 제한,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로서 학생의 40%를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노블 팜스 초등학교의 큰 강점.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이 학교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4, 5, 6학년은 올해 초에 16명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대기자까지 줄을 서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저지 주에서 연례행사 개최

미국 내 1천여 개 한글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7월 17일 뉴저지 주 티벡 매리어트 호텔에서 제3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미국에서 한국계 어린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온 교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개회식에서는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직접 참석해 연례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길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승민 NAKS 부회장은 "이전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던 데 비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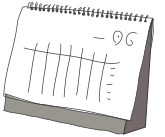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연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하형록 팀 하스 앤드 여소시에이츠 회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번에는 한국의 역사 및 문화를 접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와 협력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특강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개회식에 이어 '눈높이가 맞아야 교실이 산다', '한 시간 안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학교 교사 되기' 등 효율적인 교수법과 관련한 강의 및 세미나가 이어졌다. 또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그리고 한국 고대사',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곳, 독도', '한국 근대사와 이민 역사' 등 역사 교육도 진행됐다. 18일에는 박기태 반크 단장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재외동포가 할 일'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한글 교수법 및 역사 교육과 관련한 강의를 이어졌다. **창**



뉴질랜드 한인방송, 자체 제작 시트콤 방영

뉴질랜드 한인 방송인 월드(W)-TV가 5부작 시트콤 '김치국이 간다'를 제작해 10월 중 방영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인 이 시트콤은 한국에서 온 남녀 유학생 커플이 한인 이민사회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한국어로 연기하지만 중간 중간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자막을 입힐 예정이다.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W-TV는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 채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최석호 미 어바인 시장,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출마

최석호(미국명 스티븐 최 · 71 · 공화당) 미국 어바인 시장이 7월 16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인구 46만여 명, 등록 유권자 수 23만여 명인 제 68지구에 출마하는 그는 내년 6월 7일 예비 선거를 통과하면 11월 본선에 나서게 된다. 1998년부터 6년간 어바인 시 교육위원을 지낸 뒤 시의회에 당선해 8년간 시의회에서 일한 그는 2012년 어바인 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사할린 한인 후손들, 내년 8월 국내서 '역사 기행'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 8월 초에 9박 10일 일정으로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을 마련한다. 청소년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중 · 고교생을 중심으로 30명은 러시아 사할린 한국 한인회, 나머지 20명은 부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각각 선발한다. 사할린 한인 후손과 국내 학생이 함께하는 역사 기행은 대형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국내 곳곳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 인 서명운동

미국 시카고 한인회와 여성 향락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 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7월 5일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증언 행사에서도 참석자의 서명을 받았다. 두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차세대 청소년을 비롯한 한인동포, 지역 주민, 학계 · 정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 · 정보 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10월 15일 경주에서 한상 인턴 페스티벌 연다

해외 우량 동포기업이 직접 대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행사인 한상 인턴 페스티벌이 '한상, 청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계한상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한상 인턴 페스티벌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14차 한상대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K팝 월드 페스티벌 멕시코 예선서 15개 팀 열띤 경쟁

2015 K팝 월드 페스티벌 멕시코 예선대회가 3천200명의 K팝 팬들이 관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7월 5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개최됐다.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168개 팀 가운데 선발된 15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참가팀은 엑소의 '미미', 비의 '러브 송' 등의 노래를 열정적인 춤과 함께 선보였다. K팝 월드페스티벌은 글로벌 예선을 거쳐 오는 10월 18일 창원시에서 결선을 진행한다.



유학생 단체로 시작해 통합된 영국 한인사회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녀교육에 열심



영국에는 현재 4만 4천749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은 1만 3천여 명이고, 체류자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

영국에 한인 단체가 생긴 것은 1958년, 유학생들에 의해 이뤄진 재영 한국 유학생협회가 처음이다. 이 단체는 영국에 3개월 이상 유학하는 사람 중에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았다. 1964년에는 유학생뿐 아니라 체류자까지 포함하는 재영 한인협회로 발전했다. 당시 한인의 수는 200명에 불과한 터라 협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됐다.

1970년대 들어 한국에서의 지·상사 진출이 눈부시게 많아졌고 여기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한인협회에서 활동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협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인 동포들이 1980년 재영 한국교민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1988년 한인협회와 교민회는 2년여의 조절과 협상 끝에 결국 동포들이 주도하는 통합된 한인회로 거듭났다. 이 와중에도 동포들은 1987년 한국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한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등 큰일을 치렀다.

한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2세 교육을 위한 장소가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재영 한인회는 출범 직후부터 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동포들이 중심이 돼 한 푼 두 푼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영국 주재 기업과 현지 한인 사업가 등도 기금을 출연해 20여 년 동안 73만 파운드(약 13억 5천만 원)를 모았다. 마침내 2010년 7월 5일 재영 한인 종합회관이 런던 남쪽 레인즈파크역 인근에 위치한 2층 건물에 문을 열었다. 회관은 한인들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태권도, 요가, 요리 등을 가르치고 영화를 상영하는 등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한인 2세 및 영국인들에게 기초 한글을 가르치고 동포와 주재원을 상대로 진학, 법률, 부동산 상담을 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한민족으로서 긍지 갖도록 2세 교육에도 열성

영국에는 21개 한글학교에서 135명의 교직원들이 700여 명의 한인 2세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들 한글학교의 통합단체인 재영한글학교협의회(회장 이정순)는 올 2월 20~21일 2015 재영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가한 80여 명의 교장과 교사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집중 강의를 듣고 시범 수업을 참관한 뒤 민요 배우기, 분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정순 회장은 “연수를 통해 한글 교육 봉사에 앞장서온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어 한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도록 돕는 일은 한인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7월 27일 런던 시내 국방부 옆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서 제62주년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비 건립 경과와 성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새긴 동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인회 역시 모금한 성금을 납부해 동판에 한인회 이름을 올렸고,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인 단체와 동포들은 기념비 건립을 위해 45만 파운드(약 8억 원)를 기부했다.

런던 남서부의 뉴몰든은 유럽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약 2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런던의 ‘리틀 코리아’로 불리는 뉴몰든은 영국 BBC방송이 특집으로 다뤘을 정도로 유명한 한인타운이다. 뉴몰든 지역과 시내까지 합하면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만 100개가 넘는다. 또한 여행사, 유학원, 미용실, 이용실 등 크고 작은 한인 가게가 많다.

뉴몰든에 본사를 둔 ‘코리아 푸드’는 이곳에서 가장 성공한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창업 10년이 넘는 이 업체는 면, 두부, 김치 등 한국 식재료를 파는 도매점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로 도매 센터에 딸린 대형 슈퍼마켓 외에 영국 내에 6개의 식품잡화 체인점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인 고객을 상대로 했지만, 2009년에는 중국 식재료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이제는 영국인들 사이에도 유명해졌다.

뉴몰든은 런던 중심부와 연결된 철도 노선이 있고, 초창기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탓에 한인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한인 이민이 늘면서 커지기 시작한 한인타운은 특히 1996~97년에 급속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이곳 한인의 60%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회복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최근에는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다시 성장세가 꺾였다.

재영 한인회는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뉴몰든 지역의 한인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뉴몰든 한인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에 한인회는 지방에 거주하는 한인도 서로 결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각종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



5



6



7

1. 한인 밀집 지역인 뉴몰든 변화기에 한글 문구가 들어간 교통안전 캠페인 포스터가 걸려 있다.
2.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영국인들이 2011년 3월 23일 런던 도심에서 한국 관광 서포터스 발족식을 갖고 비빔밥을 만들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3. 한국과 브라질의 올림픽 축구 4강전이 열린 2012년 8월 7일 런던의 동포와 유학생들이 뉴몰든역 인근에서 단체 응원전을 펼쳤다.
4. 재영 한인 종합회관
5. 재영 동포 130여 명이 2001년 6월 12일 런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6. 런던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7. 영국에서 한인 최초로 경찰이 된 앤드루 김 씨

49개국 동포 청소년 400여 명, 고국에서 역사 문화 체험 지역생활 탐방 후 DMZ서 평화 기원 자전거 행진



▲ 7월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15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재외동포 청소년 400여 명은 7월 20일 임진각에서 'Peace Korea DMZ 자전거평화 대행진' 출정식을 열고 철책선을 향해 평화를 기원하며 행진했다.

주 산수박마을, 부안 모항, 진안 에코에듀센터, 산청 풀꽃누리마을, 울주 금곡마을, 영천 별빛마을, 고령 개실마을로 나뉘어 지역을 탐방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한국 음식 체험, 주변 산업단지 견학, 일일 학교 체험, 한국어 배우기, 지역 생활 탐방 등을 펼쳤다.

지역 학생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역 학교를 방문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 학생들은 동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진학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함께 학교 급식을 나눠 먹으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19일부터는 서울로 이동해 한국 근현대사 유적지를 순례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20일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으로 이동해 '피스 코리아(Peace Korea) DMZ(비무장지대)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망배단에서 출정식을 열고 임진각, 통일대교 남문·북문, 군내 삼거리를 달리며 남북 분단 현장을 살피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자전거 행진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담았다"고 전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연수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재외동포 청소년은 임명장 없는 대한민국 민간외교관이자 한민족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위상 강화를 위한 미래 자산"이라며 "재단은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민족 동질감·유대감 강화를 위해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국의 친절한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한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이 여름방학을 맞아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민족 정체성을 키우는 행사가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49개국의 중·고교생 한인 청소년 400여 명을 초청해 서울과 지방을 돌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쌍방향의 문화적·직접적 체험학습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포재단은 올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특별한 개회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독립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에 좌절하지 않고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의 역사와 유물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인식을 다졌다.

15일부터는 춘천 원평팜스테이마을, 속초 하도문 쌈채마을, 공

중국 조선족 교사 95명, 모국서 역량 강화 연수

동북 3성 조선족 학교

“학생 줄수록 사명감 커져”

중국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조선족 교사들이 대규모로 모국을 찾아와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조선족학교 교원 95명을 초청해 서울, 충남 공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동북 3성의 유치원, 초·중등 조선족학교에서 조선어 교육과 민족성 함양에 힘쓰는 교사들이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에서 문학 중심 독서 지도, 그림 동화로 여는 수업, 국어 수업 자료 제작, 한국 현대사의 역사 등 한국어, 문학과 관련한 특강을 들었다.

재외동포재단은 교사들이 저마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분반 수업을 통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처음으로 음악 교사들을 초청해 가야금 반주법, 국악을 활용한 인성 교육 등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교수법도 전수했다. 또 공주 무령왕릉, 부여 백제문화단지, 서울 한글박물관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천연 염색, 판소리 등도 체험했다.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폐회식에서 이구동성으로 “교직은 천직”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한 명이라도 더 인재로 키우려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린성 지린시 강밀봉진 조선족중심소학교에 재직하는 김춘금 교사는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한민족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온 것이 조선족(중국동포)”이라며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운 곳도 생겨났지만 그 대신 교사의 사명감은 더 커졌다”고 자긍심을 내비쳤다.

지린성 둔화(敦化)시 제2중학교의 김흥매 교사는 “조부모와 부모 자식 3대가 사는 가정이 줄어들어 가정교육이 위기”라며 “교사가



▲ 조선어 교원 초청 연수에 참가한 97명의 교사들은 역사문화 체험의 하나로 공주 무령왕릉, 부여 백제문화단지 등을 둘러보았다.

◀ 재단은 이번 연수에서 처음으로 음악 교사들을 초청해 국악을 활용한 인성 교육 등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교수법도 전수했다.

부모를 대신해 애정을 쏟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서울 용산의 한글박물관을 견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이들 교사는 교수법을 배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도록 재미있게 수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교를 탐방해 수업 준비, 강의 방식, 시험 문제 출제 등 다양한 노하우를 배운 덕분에 앞으로 더 알찬 수업을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중국의 조선족학교는 조선족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조선족 대이동으로 조선족학교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 민족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해 매년 초청연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

한미 협력 앞장서는 김영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차세대 과학자들이 한미협력 이어가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수인 김영수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7월 1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수 회장은 차세대 과학자들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1.5~2세 과학기술자를 다수 영입해 임원진을 꾸렸다. 김 회장을 비롯한 23명의 임원진은 앞으로 1년간 각종 학술대회, 본부 및 지부 행사, 행정 등의 협회 운영을 책임진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민 1세대 회원들이 당시 낙후했던 모국의 과학기술 산업의 기틀을 닦는 데 이바지했다면 창립 후 반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은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들이 한·미 간 발전적 협력의 고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원 수가 5천 명에 육박하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화합된 모습으로 정도를 걸으며 더욱 건강한 협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새 집행부는 첫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단

체중연합회(KOFST·회장 이부섭)와 함께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2015 한미과학기술산업학술대회’(UKC 2015)를 열었다. 17회째인 올해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천 명 이상의 과학기술자가 참가했다.

UKC 2015는 물리, 수학·통계, 화학, 컴퓨터정보, 식품영양, 재료기계항공, 토목환경건축, 전기전자, 바이오, 의료, 제약, 융합기술 등 12개 분야의 심포지엄과 함께 기업·연구원 포럼, 특허 포럼, 한림원과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공동 포럼, 차세대 포럼, 여성과학기술자 포럼, 대규모 채용박람회, 포스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섬김의 마음으로 최고를 추구한다’라는 주제 아래 과학기술자 간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라는 기본 목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섬김의 실천을 목표로 내세웠다.

프리미엄 비즈니스 센터로 승부하는 CEO SUITE 김은미 대표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개척

“창업 이래 유행이든 무형이든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한 감동’을 주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경영 공간(고급 사무실)이란 뜻의 ‘CEO SUITE’ 사를

1997년 창업해 아시아 7개국 8개 도시에 14개 지점을 두고 오피스 서비스업을 펼치는 김은미 대표(53)의 경영철학은 ‘최적의 위치, 최고의 빌딩,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다.

오피스 서비스는 외국 기업에는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로 사무실 등 비즈니스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비즈니스 센터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또는 프리랜서로 1인 오피스를 운영하려는 전문직 종사자가 건물 구입·임대와 현지 실정 파악 등에 드는 제반 비용을 줄이려고 즐겨 찾고 있다.

‘CEO SUITE’사는 비자카드, 골드만삭스, 나이키, 야후 등 이름만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간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차세대 여성 한상(韓商)으로 주목받는 그는 7월 중순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

에 위치한 56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최상위층 펜트하우스에 15호점을 오픈했다.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16, 17호점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중국 최고층인 100층 빌딩에 들어서는 상하이점과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 빌딩에 오픈하는 18호점 등 모든 지점이 해당 지역의 최고 빌딩에 입주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씨티은행, 호주 오피스 서비스 분야의 선두 회사인 서브코프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직접 창업에 뛰어 들었다.



차세대 여성 한상으로 주목받는 ‘CEO SUITE’사의 김은미 대표

제주서 ‘망향의 노래’ 지휘한 재일동포 **고창수** 씨

‘아리랑’ 등 연주… “가슴 벅차올라”

일본에서 활동하는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5월 중순 제주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망향의 친선 교류 연주회’를 열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재일동포 고창수(46) 씨와 단원들은 제주의 시민밴드인 한라 윈드 앙상블의 초청으로 이번 무대에 섰다.

고 씨 조부모의 고향은 제주시 한경면이다. 모두 재일동포로 이뤄진 오사카 윈드 오케스트라에는 고 씨를 비롯해 문경식(41), 현종철(44), 고용차(51), 고동일(51) 씨 등 11명이 뿌리를 제주에 두고 있다.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각오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음악을 주로 일본에서만 연주해온 이들은 11년 전 경기도 과천에서 첫 초청 공연을 펼쳤다. 조부모의 고향인 제

주에서 처음으로 연주회를 연 고 씨를 포함해 단원들에게는 이번 연주가 두 번째 모국 공연이었던 셈이다.

공연에서 ‘아리랑’과 ‘고향의 봄’ 등을 연주한 고 씨는 한국 전통음악을 고유의 멋을 살려 연주하려고 노력한다고 자부한다. 그는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음악에 담아 재일동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음, 한 음에 최선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주단의 노력 덕분에 고 씨의 관현악 ‘아리랑과 고추잠자리’는 오사카 지역의 동포는 물론 일본인 사이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다. 고 씨는 “한국이 뿌리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며 “앞으로 모국에서 망향의 노래를 들려줄 공연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



일본 오사카 코리안 윈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재일동포 3세 고창수 씨

쿠바 아바나 한국어 강좌, 개설 3년 만에 첫 수료식 수료생 11명 “사랑해요 한국”

장현구 연합뉴스 델리스 특파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가 3년 만에 첫 수료생 11명을 배출했다. 김익환 교수를 중심으로 수료생들이 수료증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가 3년 만인 7월 4일 첫 수료생 11명을 배출했다. 호세 마르티 문화원의 뒤뜰에서 펼쳐진 수료식에서 11명의 수료생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흔들며 3년 과정을 마친 기쁨을 만끽했다.

수료식 무대에서 한국 가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선사한 남녀 학생은 김익환(47) 교수를 향해 또렷한 우리말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단제 인사를 했다.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에서 2013년 9월 이곳으로 파견돼 한국어 강좌 강의 계획표를 짜고 학생을 가르쳐온 김 교수는 “수료생들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 능력을 키웠다”면서 “학생들이 우리말로 의사 표현을 하려고 노력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초·중·고급반(1~3학년)으로 나뉜 한국어 강좌를 듣는 학생은 100여 명 규모. 김 교수 혼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두 시간씩 수업한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는 터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이 쇄도해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다. 김 교수는 두 배수로 후보를 추린 뒤 인터뷰를 거쳐 입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여학생 클라우디아 에르난데스 노보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김 감독의 영화에 대한 글

을 쓰기 위해 한글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클라우디아 양은 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료생인 마르벨리스 엘미라 아게로 피에르타도 “이 강좌를 수료한 만큼 계속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선생님을 찾아 한글을 배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쿠바 이민 한인 1세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탠 임천택 선생의 증손녀인 베아트리스 폰테스 데 오키 루이스는 “내 뿌리는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부터 이 강좌의 수강생은 우리나라 공인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도 본다. 85명이 응시해 초급 30명, 2급 11명 등 41명이 합격했다. 9월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학생 2명이 6개월 일정으로 방한, 서강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작년부터 이 강좌의 수강생은 우리나라 공인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도 본다. 85명이 응시해 초급 30명, 2급 11명 등 41명이 합격했다. 9월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학생 2명이 6개월 일정으로 방한, 서강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시내 DVD 판매점에서 한국 드라마가 하루 20~30개씩 팔릴 정도로 미수교 국가인 쿠바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드라마를 통한 한류의 영향,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목표 의식 덕분에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단순히 한국말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진단했다. **▶**



아바나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 재학생들이 수료생을 위해 한국 가요를 부르고 있다.

재외동포의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 지켜야 가산세 피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 재산 평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국내 소재 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가 달라진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에서 공제한다. **참**

Q&A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인 미국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한국 부모 및 미국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개최 ‘풀뿌리 통일 준비 운동’ 실천 다짐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부채를 흔들며 '통일 준비 한마음 파도 타기'를 하고 있다(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7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현경대 수석부회장이 해외 간부위원의 역할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우).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7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7기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출범회의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자문위원과 초청 인사 등 1만2천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회의는 제17기 구성 현황 및 활동 방향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의장) 대회사, 통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선 총 1만9천94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17기 민주평통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제17기 활동 방향을 의결했으며, '풀뿌리 통일 준비 운동'의 본격적 실천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회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이번 회의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통일 준비 본격화를 위해 '통일 준비 한마음 제17기 자문위원의 결의문' 낭독을 특별 순서로 진행했다.

결의문은 “이 시대의 으뜸가는 소명은 조국의 통일이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는 분단의 고통을 연장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8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망찬 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17기 민주평통은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을 활동 목표로 정하고 자문 건의 내실화, 통일 준비 본격화, 통일 미래 인재 육성,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상 구현 등 4개 활동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민주평통은 통일 준비의 지방화, 구체화, 국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통일 준비의 지방화를 위해 역사적 배경과 지역 유사성 등을 고려한 '남북 시·도 간 매칭(자매결연)'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 준비 구체화 과제로는 ▲남북 법·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남북경협·북한 개발 정책·통일 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통일 준비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또한 통일 준비 국제화의 목적으로 국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갑윤 국무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

봉사로 눈뜨는 '제2의 조국' 과테말라

고부명 과테말라 |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나는 1992년 10월 정든 산천 내 조국을 등지고 달랑 이민 가방 하나를 들고 비행기를 타기 한 달 전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음도 처음 알았다.

하루를 꼬박 걸려 도착한 공항은 대한민국의 어느 한산한 시골 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초라해 한눈에 개발도상국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시에 한국인 동포는 500여 명으로 대부분은 섬유 관련 업체에 종사했고, 어디서 만나든 고국에 두고 온 일가친척을 만난 것처럼 동포애가 물씬 풍기는 만남이었다.

단 한마디 인사말도 잘 못할 정도로 언어의 장벽을 가진 채로 한의원을 열었던 당시의 그 힘든 고생을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의원을 열고 하루에 한두 명씩 찾아오는 동포 환자로 의로움과 향수를 달래며 틈나는 대로 스페인어를 배웠다. 그렇게 숨 가쁘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 신체 명칭이나 병명 정도는 현지어로 말할 수 있게 돼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용기를 내어 원주민도 진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음을 알게 됐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곳에도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원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히자 수도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소도시 안티과에 있는 엘마노 페드로라는 무료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 즉시 병원을 찾아가 원장인 신부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너무도 좋아하면서 병원 직원을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한 의료봉사를 7년을 넘게 했는데 보람이 매우 커 과테말라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봉사를 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제출하라고 병원으로 연락이 왔고 엉겁결에 보냈더니 신청도 안 한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영문도 모르고 비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병원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나의 봉사활동을 알리는 글을 보낸 덕분이었다. 이



사회적 권리 요구를 위해 거리 행진에 나선 과테말라의 원주민들. 과테말라는 절대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식량 부족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병원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원조로 500여 명의 중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과테말라 원주민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나는 이곳을 고국처럼 따스하게 느끼고 사랑하게 돼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금도 당시 봉사를 시작한 것이 참 다행이다 싶다. 만약 돈 버는 일에만 치중했다면 나는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벌써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물론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내 동포를 사랑한다. 내가 봉사한 일을 자랑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경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나는 이를 자랑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곳에서 이민 생활의 한 가지 철칙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이민 생활을 새로 시작하려는 동포나 힘들어 이민을 접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주체롭게 꼭 한마디 조언하고 싶다.

어느 곳을 가든 그 땅과 그곳에 사는 현지인을 사랑하며 포근한 마음을 가지면 고국에 대한 향수는 저절로 치유되고 마음도 편안해져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또한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창**

내 인생의 출발지

박수완 중국 | 2014 동포문학상 고등부 최우수상

중국에 대한 첫인상을 말해보라 하면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기였기 때문이다. 처음 배에서 내려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마 엄마의 품에 안겨 흐리멍덩한 두 눈으로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색깔과 다양한 냄새가 뒤섞인 '혼잡함'이라는 것을 신기한 듯 뚫어져라 쳐다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점을 무시하면 중국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였다.

그 인상은 아마 중국에 오자마자 겪었던 소위 '물갈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아기였던 나는 온몸에 열이 나고 자꾸 설사를 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후 한국인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이 거짓말로 나를 밖에 내보낸 다음 방문을 잠그고 자기끼리 소꿉놀이를 한 기억이 난다. 당시엔 그게 고의였단 것도 심지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지만 훗날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일종의 따돌림이자 내가 느꼈던 첫 소외감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두 번 다녔는데 첫 초등학교 1학년은 상해한국학교에서 보냈다. 이때의 기억은 대체로 행복했기에 지금까지도 반짝이는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남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나는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하고 1년 뒤에 현지 학교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했다. 그리고 우습게도 초등학교를 두 번 입학한 나이가 된 그해, 중국에서 8년을 보내고서야 나는 '내 나라'가 아닌 낯선 언어를 쓰는 낯선 땅 즉 외국에 살고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다.

중국 아이들의 눈에는 자기가 말을 걸어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던 내가 이상했을 것이다. 반면 나도 그전의 한국학교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나는 학교의 엄격한 규율들을 따르려 애썼다. 매일 아침 체조를 하고 중국 국기를

향해 경례를 했으며 중국 사자성어와 시를 외우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애들은 마치 옛날 봉건주의 시대의 그들 조상처럼 이방인인 나를 거부하고 고립시켰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분위기는 점차 사그라져 갔지만 그때의 기억은 희미해질지언정 평생 내 뇌리에 박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5학년 때 있었다. 당시 담임은 연세가 지긋한 여선생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성적 순위를 아이들에게 알려줬다. 어느 날 난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어린 나는 책상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내 이름이 불리길 잔뜩 기대했는데 선생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양 마음 상한 표정을 짓더니 바로 내 다음 순위의 이름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 뇌가 '찰칵' 하는 소리를 내며 카메라 셔터를 누른 것처럼 그 순간은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보는 나와 그런 나를 무시하곤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머지 이름을 불러 내려가는 선생님'이라는 장면으로 내 기억 속 한 공간에 각인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한동안 교탁 쪽을 지나가거나 선생님을 마주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이렇듯 친구 몇 명 사귀는 것 빼고는 나의 어린 시절은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었다. 나는 한참 후에야 그런 부당한 대우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에 근거를 뒀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을 때 나는 중국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든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며 모든 미련을 버렸고 초연한 마음으로 중국을 밀쳐냈다. '여긴 그냥 다른 나라 언젠간 떠날 곳이야' 라면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지금 내가 다니는 국제학교로 옮겨왔다. 중국 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만 공부를 하던 나로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이 모여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이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국제



학교의 특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비록 몇 명 없었지만 한국 친구들 -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갈망해오던 한국의 느낌이랄까 나의 그리움을 충족시키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 도 있었다. 서툴지만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한국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곧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처음으로 노래방도 가보고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고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서 나는 내가 완전한 한국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친구들은 가끔씩 내가 10년 넘게 중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비꼬듯이 말해 나의 환상에 금이 가게끔 했다. 짓궂은 남자애들이 나를 '짱깨' 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참다 못해서 화를 터뜨리기 전까지 모든 한국 친구가 따라 불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당시 나에게는 '중국인스러움'이 가장 심한 욕이었다. 나름대로 '한국인스러워' 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기에 '짱깨'라는 별명은 실로 엄청난 타격이었다.

나는 모르는 한국 단어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리면 부끄러워했다. 중국에 오래 살아서 모국어도 까먹어버린 멍청이라고 누군가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느낌을 받았고 실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말로는 안 해도 그 두 눈이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자존심과 고군분투하며 나의 사춘기가 지나갔다. 많은 한국 친구와 교류를 해보고 나서 인성은 나라를 따지지 않는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달았다. 한국인 이면 무조건 친해지고 보려는 생각은 오산이었고 중국인은 다 나를 싫어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편견이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책에서 읽고 큰 위침을 얻은 적이 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 탓.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눈은 열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동을 일으켰고 그 전율은 심장을 가로질러 올라와 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금까지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건 주변이 아니고 나였고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던 장본인 역시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 시절의 중국 친구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따지지 않으리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국엔 전화위복이 되어 더욱 성숙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중국 국기에 경례를 하기 싫어했던 어린 나, 한국 친구들한테 쭈뼛쭈뼛 다가가던 나, 무언가에 쫓기듯이 국어사전을 펴놓고 공부하던 나, 또 지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나.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나는 앞으로도 수많은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갈 길이 멀다. 오늘도 나는 하루 단위의 인생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정을 성실하게 완수해나가고 있다. **창**



전 세계 한인회 실무진 43명 초청 연수



재외동포재단의 각 사업별 부장과 44명의 한인회 사무국장은 연수 기간 간담회를 열고 한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의 한인회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해 고국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가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6일부터 미국, 중국 등 29개국에서 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 등의 사무국장 43명을 초청해 3박 4일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단은 한인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고국과 접점을 넓혀 각국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연수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광복 70주년 통일 특강, 동포재단 이사장 간담회, 지역별 한인 현안 토론, 한인회 사업 개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쟁기념관 견학,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도 체험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한인회와 실무적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실무자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재중동포 언론인 6명, 고국 언론사서 집중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재중동포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중동포 언론인 6명을 초청해 국내 언론사에서 실무 연수를 받게 했다.

중국 동북 3성의 중국동포(조선족) 언론인이 고국을 방문해 국내 언론사 등에서 한달간 연수를 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부터 펼치는 재중동포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린 ‘2015 재중동포 언론인 초청연수’에는 길림신문사, 연변일보, 요녕조선문보 등 6개 언론사에서 현직 기자가 1명씩 참여했다.

이들은 7월 1일 입국해서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한 후 2~3일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이론 교육을 받았다. 6일부터는 이번 연수를 후원하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사 작성, 현장 취재, 사진 등 다양한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기간에 언론사 현직 기자가 일대일 연수를 담당했고, 다양한 취재 부서에서 현장 실습을 경험하는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 행사 취재에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모국의 선진 언론 시스템을 배우게 돼 감사하다”며 “연수 기간에 모국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재한

조선족사회를 밀착 취재한 것이 큰 성과”라고 기뻐했다.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 모국서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에서 고려인 교사 3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7월 3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의 경인교육대학교 예지관 2층 컨벤션룸에서 열린 입학식을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5주간 집중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입학식 환영사에서 조규형 이사장은 “고려인은 특유의 근면·성실과 적응력으로 러시아·CIS 지역에서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 성장했다”면서 “남북통일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고려인과 모국의 유대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금재(여·67) 러시아 올긴스카야 한글학교 교장은 “러시아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어 고려인 학생뿐만 아니라 현지인 청소년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가르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을 주관하는 경인교대는 연수를 다년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반영해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학습’으로 교사들을 지도했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하룻강아지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철모르고 아무에 게나 함부로 힘을 쓰면서 덤비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담에 '하룻강아지 재 못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련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큰일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속담에 나온 '하룻강아지'라는 것을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겠지만, 이 말은 원래 '하룻강아지'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짐승의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특수한 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룻강아지'란 말에 나온 '하룻'이 그 중의 한 예입니다. '하룻'은 한 살짜리 동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밖에 '두릅, 사릅, 나릅'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두 살, 세 살, 네 살짜리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란 말은 실제로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일 년이 안 된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쇠 우리 속담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하고 굳센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무쇠'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쇠 다리'라든가 '무쇠 주먹'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무쇠'라는 것은 '물쇠'에서 나온 말인데 무른 쇠라는 뜻입니다. 무쇠는 또 '주철'이라고도 합니다.

무쇠는 강철보다 무른 쇠로서 탄소와 규소 따위가 들어 있는 철 합금입니다. 빛깔이 검고 바탕이 연한데, 강철보다 녹기 쉬운 점을 이용해서 솥, 철관, 화로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재료로 씁니다. 옛날에 쓰던 가마솥도 역시 무쇠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도 밥을 맛있게 지어먹을 수 있도록 무쇠 솥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어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
-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짓
-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대화를 삽입해 나타낸다.
-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
- 공기 중의 수분이 영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 꽃잎을 따서 백반, 소금 따위와 함께 찢어 손톱에 붙게 물을 들이기도 하는 풀

▶ 아래쪽 방향 열쇠

- 매우 크고 좋은 기와집을 말할 때 '○○○ 같은 기와 집'이라고 말하죠.
- 대구과의 바닷물고기. 처음 잡으면 생데, 얼리면 동태, 겨울바람과 눈 속에서 말리면 황태라고 부른다.
- 조선 후기의 한의학자(1838~1900). 자는 무평(務平). 호는 동무(東武). 의학을 임상학적인 방법으로 체계화해 수세보원(壽世保元)의 학설을 창안하고 사상 의학의 시조가 됐다.
-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사람
- 신라 때에 둔 화랑의 무리
- 방아로 곡식을 찧거나 뺨는 곳
- 임금의 사위
-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밥만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

▶ 오른쪽 방향 열쇠

- 쌀·보리 따위로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계 썬 죽에, 메줏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 중국 당나라의 시인(701~762)으로 본명은 이백
- 적의 야간 공습 시, 또는 그런 때에 대비해 일정한 지역에서 등불을 모두 가리거나 끄게 하는 일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 말을 부려 마차나 수레를 모는 사람

-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꾸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기계
-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기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 기계 체조에 쓰는 가구. 기둥 위에 두 개의 횡목을 42c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부착하여 높이 1.6m, 길이 3.5m로 만든다.
- 다섯 사람씩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어 얻은 점수의 많음을 겨루는 경기
- 일본 음식의 하나. 초와 소금을 친 흰밥을 가름하게 뭉친 뒤에 고추냉이와 생선 쪽 따위를 얹어 만든다.
- 젓먹이 아기를 이르는 말

▶ 7월호 정답

	여	공	휴	일	노	래
구		화		명	인	
구		계	산	기		
단	군	단	회	전	문	
		사		문		
이	열	치	열		가	랑
간		매	부	리		민
질	그	릇			자	매
	네	식	인	종		국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별미 막국수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는다



1



2



춘천을 대표하는 요리는 단연 닭갈비와 막국수이다. 닭고기에 갖은 야채와 떡을 넣고 볶은 양념을 첨가해 볶은 닭갈비와 메밀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는 막국수는 땅이 척박하고 날이 추운 강원도 춘천에서 꽃피운 음식이다. 특히 막국수는 맛이 수수하고 깔끔해 식욕을 잃기 쉬운 무더운 날에도 찾는 이가 많다. 춘천시는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연다.

신북읍의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은 식당

에서만 접하던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곳이다. 먼저 메밀가루와 밀가루가 혼합된 막국수의 재료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다. 이어 막국수의 핵심인 면을 뽑아낼 차례이다. 물뿌리개 덮개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기다란 원통에 반죽을 넣고 위에서 힘껏 누르면 기다란 면이 흘러나온다.

보통 식당에서는 막국수 면의 지름이 4mm이지만, 박물관에서는 조금 더 굵은 5mm짜리 면을 사용한다. 찬물을 조금씩 부

어주며 면을 5분 정도 삶아 꺼낸 뒤 찬물로 헹궈 조리를 마무리한다. 완성된 면은 체험장과 붙어 있는 식당에서 곧바로 시식해볼 수 있다. 닭고기 육수, 양념장, 깨, 설탕, 야채, 김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으면 된다.

그렇다면 '소바'라 불리는 일본의 메밀국수와 한국의 막국수는 어떠한 점이 다른 것일까. 서로를 구분하는 눈에 띄는 요인은 달콤한 장국과 매콤한 양념을 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면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4



5



3

일본의 메밀국수는 반죽을 넓게 펴서 칼로 자르지만, 막국수는 압축기를 이용해 단숨에 뽑는다. 따라서 메밀국수는 면이 네모나고 불규칙한 반면, 막국수는 동그랗고 균일하다.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도 배울 수 있다.

박물관의 1층에는 거대한 맷돌 모형을 중심으로 전시물이 꾸며져 있다. 첫 번째 공간은 메밀의 생태와 효능, 유래와 분포 등을 알려주는 곳이다. 메밀은 중국 동북부가 원

산지로 성질이 서늘한 찬 음식에 속한다. 그리고 소화기 잘 되도록 돕고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건강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철에 먹으면 좋다. 두 번째 전시실에서는 전통적인 메밀 재배 방법과 현재의 제분, 반죽, 제면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막국수의 종류와 다채로운 메밀 음식이 소개돼 있다. 외국에서는 메밀로 팬케이크나 도넛만을 만드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메밀의 조리법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제주도에는 멸치와 미역으로 국물을 내고 수제비처럼 메밀 반죽을 떼어 넣는 '메밀제배기'가 있고 강원도에는 전병, 칼국수, 묵 등이 있다.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에서는 메밀과 관련된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국산 메밀가루와 메밀쌀, 메밀차 등이 진열돼 있다. 밀가루나 녹두 전분이 일부 포함된 부침가루와 묵가루도 구입할 수 있다. 막국수 만들기 체험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안팎이어서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다. 막국수 만들기 체험을 하기 전에는 미리 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

1. 막국수 틀과 솔다지를 형상화한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
2. 막국수 체험박물관에서 시민들이 과거 막국수를 만들던 전통기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3. 춘천시 막국수 체험박물관의 메밀밭 전경
4.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관광객이 막국수를 뽑아보는 체험을 하고 있다.
5.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막국수 만들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김유정 문학촌



신동면 실례마을에는 국내 최초로 인명이 기차역의 이름으로 차용돼 화제를 모았던 김유정역이 있다. 역 뒤편에는 소설 '동백꽃', '봄봄' 등 농촌의 현실을 수려한 필치로 그려낸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촌이 조성돼 있다. 김유정의 생가와 외양간, 디딜방앗간, 정자가 있으며 문학 산책로와 금병산 등산로도 마련돼 있다.

문의 :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www.kimyoujeong.org,

▶ 춘천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중도 유원지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 애니메이션 박물관 → 인형극 박물관 → 강원 드라마 갤러리

• 대중교통

서울 상봉역 → 춘천역
(15~20분 간격, 1일 104회 운행)
서울 용산역 → 춘천역
(ITX → 청춘, 60분 간격 운행)
문의 : 033-250-3074
(춘천시 관광개발과)

• 식당 정보

오봉산막국수 033-242-4289
통나무집닭갈비 033-241-5999

“세계한상대회 통해 해외 진출 기회 잡으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의 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의 한민족 경제인이 고국에 모여 경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대회를 오는 10월 13~1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200여 개 기관과 기업을 선발해 기업 전시회를 연다.



전시장에는 한상 특별관,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특허 산업관 등 250여 개 부스를 마련해 기업 홍보, 수출 상담, 기업인 교류 등을 진행한다.

참가 기업 등록은 8월 31일까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세계한상대회 전시사무국(☎02-3415-0153)으로 하면 된다.

독자 후기

이춘성 서울 구로구



‘재외동포의 창’ 7월호를 보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국에서의 숙식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시는 큰누님도 한국 오면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머물다가 가뜰스 많은 동포가 친인척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은 정말 평생에 몇 번 볼까 말까 한데 불편하고 또 아쉬운 점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통신원 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언제나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의 창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모국 수학 동포 대학생 도울 멘토 찾아요”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재외동포 장학생을 도울 멘토를 모집한다.

멘토는 교육, 외교, 경제, 어문, 과학, 예술 등에서 쌓은 경력을 토대로 동포 장학생을 위해 진로 상담, 지식 전수, 정착 지원 등을 맡는다. 25명을 선발하며, 관련 분야 퇴직자도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12월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sanghu5@okf.or.kr)로 제출하거나 동포재단을 방문해 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415-0173)로 할 수 있다.





한(韓) 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
Be Hansang, Go Global!

제14차
세계한상대회

THE 14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5. 10. 13(화) ~ 15(목)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EUROPE
124,000

CIS
491,000

CANADA
205,000

USA
2,091,000

CHINA
2,573,000

JAPAN
892,000

MIDDLE EAST
25,000

AFRICA
10,000

SOUTHEAST ASIA
296,000

OCEANIA
188,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11,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